전체 시나리오

**\* 상황분석(현황)**

**- 운전 중 졸음운전이 가장 큰 비중**

[2019.02.12] 다가오는 봄철 졸음운전, 미리 알고 예방하자  
- 최근 5년 동안 졸음운전 566명 사망. 음주운전사고 사망률보다 높다.  
- 시간대는 자정부터 새벽2시, 점심시간 이후 2시에서 6시 사이  
- 2시간이상 운전할 때 사고 날 확률 10%이상 증가한다.  
- 졸음운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27개 고속도로 노선에 235개 졸음쉼터 마련 🡪 ~~그럼 차라리 졸음쉼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낫지 않나~~

[2017.07.12] 버스기사 10명중 6명 “졸음운전 경험”   
- 일반 운전자 90&는 졸음이 오면 휴식할 곳을 찾는다. 하지만, 대형 차량 운전자가 장시간운전으로 졸음운전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됐지만,, 70%정도가 찾음.  
- 고속 시외버스 운전기사 하루 평균 운전시간 10시간이 넘음. 버스 기사들 1주일 평균 12.7회 (일반인 8.6회)  
<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17/07/468528/>

**- 졸음운전 사고 막기 위해선 휴식이 꼭 필요함.**

[2019.04.08] 봄철 졸음 운전 주의… 경찰 관계자 “졸음운전 사고 막기 위해서 장시간 운전할 경우 2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야한다.”  
<http://www.jeju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35309>

[2019.04.14] 봄철 졸음운전, 점심 직후 사고 ‘치명적’  
- 졸음운전 사고는 봄철에 가장 많고, 점심시간 뒤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고가 잦다. 이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의 6.4배.  
- 젊은 사람의 경우엔 짧은 시간 잠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는 성향. 중년 운전자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.  
<http://md.kbs.co.kr/wendi/disasternews/view.do?ncd=4179565>

[2019.05.03] 경남경찰청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 
- 경남경찰청 졸음운전 예방하고자 졸음쉼터에서 커피 나눠줌. 경찰 “장거리 운전 시 졸음쉼터 이용해 휴식 취해야 함.”

[2018.04.05] 2021년까지 고속도로, 국도에 졸음쉼터 84개소 추가 설치

[2018.02.20] 졸음쉼터, 짧은 연휴 심한 정체에 역할 톡톡  
- 설치 전 후 비교하면 해당 구간의 사고발생 건수가 28%, 사망자수 55% 감소  
\_ 하지만 졸음쉼터 이용자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사고 경험함.   
- 졸음쉼터는 휴게소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.   
- 해마다 졸음운전 이용자 40% 정도씩 늘고 잇음.   
<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630446>

[2016.08.07] 전문가들에 따르면, 졸음운전 대책은 정말 이거 하나 밖에 없다  
-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박사 “졸음운전 확대, 연속 운전시간 제한하는 등 기술적,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돼야함.”  
<https://www.huffingtonpost.kr/2016/08/07/story_n_11370898.html>

**\* 문제점**

- 졸음쉼터 이용률 현저히 낮다

[2019.01.27] ‘졸음운전 시한폭탄’ 화물차 위험질주… 졸음쉼터 무용지물  
- 화물차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운전자 편의 측면에선느 거리가 멀다. 졸음쉼터 대신 인근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편  
-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졸음쉼터에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 
- 화물차를 위한 전용휴게소도 있지만 전국 21곳 뿐.  
<http://news1.kr/articles/?3533638>

[2018.10.15] 교통사고 줄이려 만든 졸음쉼터에서 6년간 사고 38건 발생  
<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181015000619>

[2016.09.02]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졸음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?  
- 편의시설 부족, 공간 협소, 주차하기 힘들어서,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 
- 졸음 사고 예방대책 🡪 버스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일정 조정, 졸음쉼터 개선  
- 대부분이 휴게소 선호하고 졸음쉼터의 선호도는 4%의 불과   
<http://www.dailyj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8401>

\* 해결방안

\* 아이디어

- 기본 정보 (남성, 나이) 이런거 입력해서 추천

\* 기대효과